



NH농협은행, 조폐공사와 지역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대국민 디지털금융 편의 제고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농협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및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왼쪽)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아차, 초록여행 참가자 모집
기아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8월 미션여행 '준비했어요-산림농어촌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록여행의 사업 권역을 강원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왼쪽부터), 김인호 한국철도공사강원본부장, 김대식 기아차 전무, 김신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충의 사단법인 강릉시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장, 김한근 강릉시장,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JW그룹, 독거노인 찾아 단오맛이 나눔 봉사활동
JW그룹 임직원들이 단오를 맞아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동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오 맞이 나눔 DA Y'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등 임직원들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 20여 명은 앵두화채, 수리취떡으로 구성된 단오 전통 음식 30세트를 만들고 독거 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JW그룹



금호타이어,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후원
금호타이어는 한국메세나협회 및 아츠커뮤니케이션21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후원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개운중학교에서 무용 및 시각예술 교육으로 구성된 진로체험교육 '예술로 하이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소년 진로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에쓰오일 새 대표이사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CEO(최고경영자)에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사내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알-카타니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 사우디 아람코 쉘 정유

회사(SASREF) 대표이사를 맡았다. 알-카타니 대표는 글로벌 에너지석유 화학 산업의 전략적 성장과 개발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활동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알-카타니 CEO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정연우기자 ywj964@

주주총회 당일 변경, 적법하려면?



**김 다 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소집 통지된 시각에 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처럼 2주 전에 통지를 하는 이유는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 해당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연기하지 않고 당일 시각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적법한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연기 통지는 원래 개최하려던 총회일의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총회의 연기를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그 연기의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위 판례의 사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냈으며, 전보와 휴대전화(직접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해당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가 적법한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 없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한 시각, 장소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한가? 먼저 판례는 주주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최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 개최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당초 통지된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총회 개최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최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결국 주주총회의 개최시각과 개최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주주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 시각, 개최장소 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고, 그에 따라 위법하게 변경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오늘 현충원서 엄수

고문 141명, 장례위원 3300명

정치권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을 엄수한다. 이 여사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3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여사 운구 행렬은 추모식 당일 오전 7시 신촌 장천교회에서 장례예배 후 동교동 사저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도착한다.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 3인을 위촉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는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을 포함 141명을 구성했다. 장례위원은 총 3300명 규모로 민

주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했다. 사회장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석대성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인사

◆ 한국딜로이트그룹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 파트너 승진 △ 공선희 △ 김재현 △ 박재철 △ 서규석 △ 양원제 △ 이룩영 △ 장문보 △ 조지훈 (이상 회계감사본부) △ 이성재 △ 이신호 △ 인영수 △ 임홍남 △ 정재필(이상 세무자문본부) △ 박승현 △ 임국진 △ 황지만(이상 재무자문본부) △ 김학범 △ 문범석(이상 리스크자문본부) △ 김민경(이상 위험관리본부) ◇ Principal 승진 △ 신금호 △ 지성원 △ 한유기(이상 회계감사본부) △ 최재석(이상 세무자

문본부) △ 염승원 △ 이종범(이상 재무자문본부) △ 강진우(이상 위험관리본부) △ 장현주(이상 커뮤니케이션전략실)

부음

▲ 김상남씨 별세, 박재범(자영업)씨 모친상, 이기섭(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전재호(합동참모본부 해군 대령)·김종일(자영업)씨 장모상, 이지연(중소기업중앙회 과장)씨 외조모상 = 13일 0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

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2-2258-5940.

▲ 배소수씨 별세, 김홍식(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장)씨 모친상, 변은영씨 시모상 = 13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2-923-4442.

▲ 허식씨 별세, 허은심·허윤경·허욱(이호산업개발 부장)·허은하씨 부친상, 김정현(미래일보 편집국장)·박우열(이호산업개발 대표)·정복수(이호산업개발 부장)씨 장인상 = 13일 오전 3시11분, 인천 신탄진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부평승화원. 032-548-1009.